



북미주 이화동창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EWHA WUAANA

www.ewhaian.org

E-mail: EWUAANA@gmail.com

Phone: (858)-461-1412

발행인: 이영희 편집인: 임성숙

동창은 이화가 배출한 보배, 우리의 생동력은 이화의 보람

2015년 6월

2015년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anada 와 New England 가을단풍 크루즈
2015년 10월 4일~11일



교훈

이화가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 이념들을 진(眞), 선(善), 미(美) 라는 간결한 표어로 정의한다.

풍부한 지혜와 지식, 아름다운 덕성과 정서를 조화롭게 지닌 인성교육은 이화가 추구하는 전인교육 이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가 최상의 가치로 삼아온 진, 선, 미는 하늘에 속한 것인 동시에 인간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이화의 교훈은 1930년 무렵 당시 문과 교수이던 김상용(金尙榕) 선생이 간결하고 명확한 '진, 선, 미'를 제안하였고, 교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제정되었다.

眞 진

진(眞)은 지(知), 즉 학문의 전당으로서 이화가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대학이 지식의 탐구를 게을리하면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만다. 더구나 지혜의 원천이며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이화여자대학교는 지식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문 연구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

善 선

선(善)은 덕(德)이다. 지식은 인간에게 선하게 사용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지니고 있는 지고지순의 아름다운 덕성, 그것은 사랑의 정신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국만리 타향의 벽안의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데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며, 공동체 사회와 인류사회의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염원이다. 이화인들은 이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자신을 지혜롭게 갈고 닦으며, 나아가서 책임 있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美 미

미(美)는 조화(調和)를 의미한다. 그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예술적 정서이다. 모든 인간에게 내재하는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자유와 독특한 개성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화가 추구하는 미(美)의 참된 개념이다. 이화는 전방향의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경영해 나갈 창조적인 지식인을 양성할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다.



차례 | TABLE OF CONTENTS

• 이사장 인사말 - 김명미	4
• 회장 인사말 - 이영희	5
• Editorial - 장명주	6
• 의대 소식 - 오구미	7
• 의료원 소식	8
• 동창 탐방 - 민경해	9
• 장학부 소식	10
• 장학생 편지	11
• 2014년 총회 보고	12
• 예술 전시회 보고	13
• 총회 사진	14
• 임원 명단	18
• 시 - 오문강 · 박윤수	19
• 15주년 기념 좌담회 - 사회: 최경숙	20
• 독후감 - 신정순	24
• 수필 - 박순자	25
• 수필 - 정인자	26
• 기행문 - 고중영	28
• 광복 70 주년 - 유진순	30
• 동창활동 소식	32
• 후원금 / 총회 / 이사회 Agenda	36
• 관광지 안내	37
• 광고	38

* 표지 사진 - 유진순 (심리, 57)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사랑하는 북미주 이화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에 회장에 이어 2015년 이사장을 맡은 김명미입니다. 지난 한 해는 저의 생애에서 과분하게 많은 사랑을 받은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2014년 총회와 California Style 여행, 각종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선후배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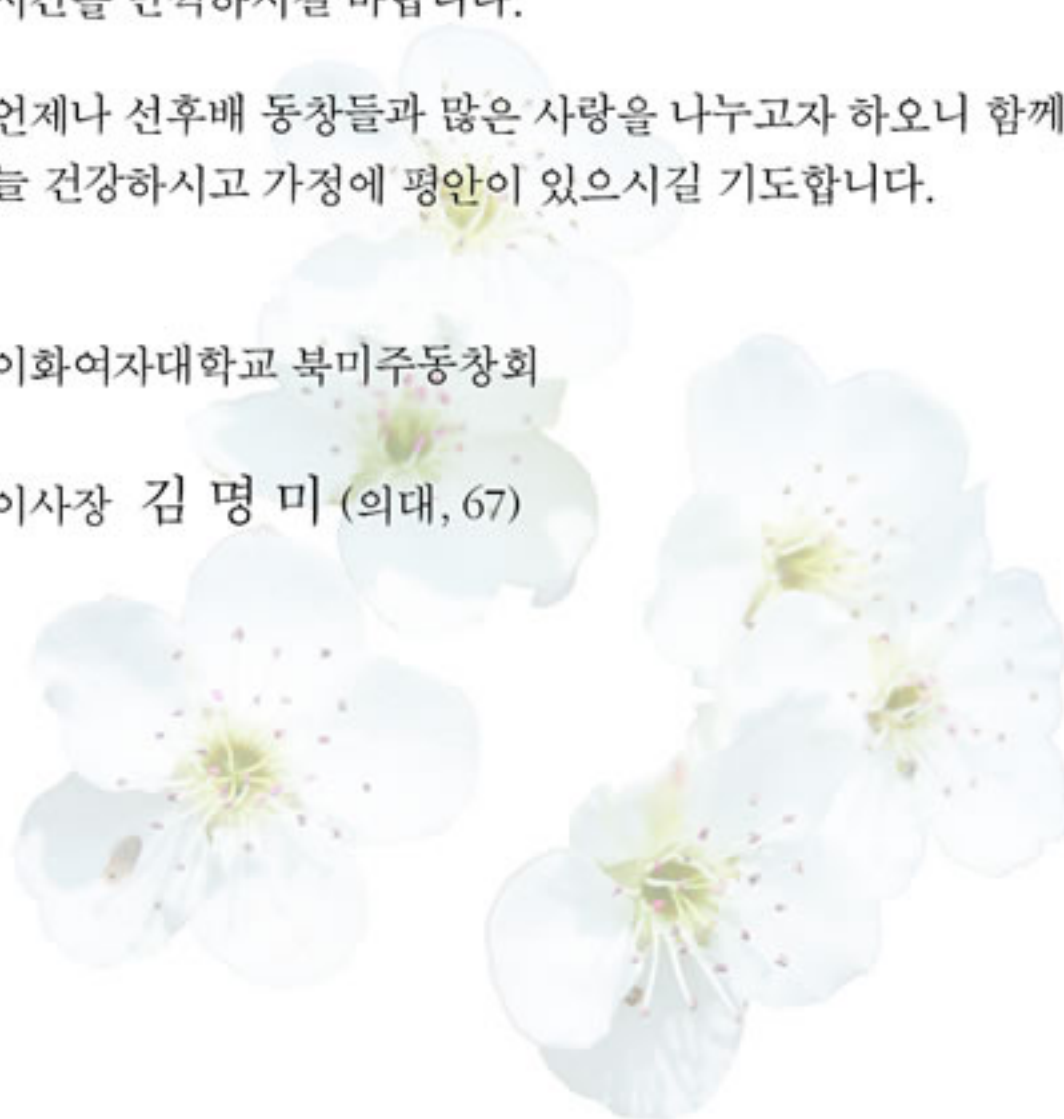
특히 이화의료원 제2부속병원 건립에 \$1Million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헌신해 오신 이화여대 북미주 의대동창회 오구미 회장님과 많은 선후배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병원 건립 모금활동을 위해 서울에서 저희 북미주동창회 총회 모임에 참석하신 이순남 의료원장님과 정성애 교수님 그리고 이후정 팀장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북미주동창회가 창립 15주년을 맞는 해 이기에 더욱 뜻깊은 만남을 기대합니다. 2015년 이영희 회장님과 한영숙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임원들이 동창들과의 즐거운 만남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계십니다. 가장 저렴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유익하게 Canada와 New England 가을단풍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동창들이 참석 하시어 반갑고 재미있는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선후배 동창들과 많은 사랑을 나누고자 하오니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이사장 김 명 미 (의대, 67)





사랑하는 북미주 이화 동창님들께, 그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니까?

“동창을 위한 동창”의 모임인 북미주동창회를 지금까지 발전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선후배님들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1년 샌디에고에서 열린 북미주동창회 연례총회의 마지막 날에 처음으로 잠깐 참석했던 것을 계기로 동창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귀하고 멋진 선배님들의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보고 느끼면서 저도 함께 동창회 일을 하고 싶어졌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마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올해의 회장으로 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멋진 총회 모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석하셔서 동창회란 울타리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과 추억과 축복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총회는 누구나 한번 꼭 가보고 싶은 Canada/New England 단풍구경과 함께 크루즈 선상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위원들과 임원 모두가 성심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에 Boston을 떠나서 Maine주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Portland와 Bar Harbor에 있는 유명한 Acadia National Park와 Cadillac Mountain을 구경한 후 Canada로 건너가 New Brunswick의 최대의 도시 Saint John과 세계적 명소로 꼽히는 The bay of Fundy, 그리고 가을 단풍의 극치를 보여주는 Nova Scotia의 Halifax를 끝으로 다시 Boston으로 귀향하는 7박8일의 알찬 여행입니다. 또한 선상에서의 의미있는 총회모임과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회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한영숙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준비위원들과 임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나면 항상 반갑고 새로운 선후배들을 서로 알아가는 기쁨에 매년 참석하고 싶어지는 북미주동창회 연례모임에 함께 떠나는 이 크루즈여행에서 많은 분들을 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하니 벌써부터 10월이 기다려집니다.

다시 뵈 때까지 동창 여러분과 그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회장 이 영 희 (국제사무학, 73)

한자리 모임의 꽃 이화

철에 맞지 않게 봄비라고는 너무 강한 느낌의 비가 내리는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2015년! 올해는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가 15년째 생일을 맞는 해이며 우리 동창들의 열 다섯번째의 만남이란 것을...

새로운 이념에 주시한 북미주동창회의 설립으로 북미주 전 지역에 살고 있는 동창들에게 동창회라는 이화의 전당을 마련해 주신 선배님들께 먼저 진실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화라는 공동체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우리들에게 북미주동창회를 통해 마음 편히 언니 동생의 관계로 서로의 인생 경험도 나누며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북돋아 주며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따뜻한 손길로 이화인답게 한명 한명을 다듬어 주셨지요. 또한 한결같이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한 사랑으로 무언가를 보답 하고자 함께 꿈을 펼치기 시작했지요.

이제 실제로 그 꿈의 현실이 이화여자대학교 마곡 제2의료원 병원 건립 후원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LA 연례총회에서 이순남 의료원장님을 모시고 전세계에서 여자대학으로서 제일 스케일이 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발전과 진보를 위해 북미주에서도 동창들의 정성어린 모금으로 참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또한 북미주동창회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존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줍니다.

이렇듯 활발하게 발전해 가는 동창회에도 어려운 면이 또한 따르고 있습니다. 북미주에 살고 있는 동창들이 일정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한곳에 모여 친교하며 동창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더 나아가 동창회의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북미주총동창회의 창립 의도와는 상관없이 뜻하지 않게 북미주에 두 동창회가 존재하며 모든 이화동창들이 함께 한 장소에서 만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척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난 여러해 동안 다방면의 노력이 오고 갔으며, 많은 이화인들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개개인의 이화인들로부터 받은 질문은 “왜 우리가 북미주에 함께 존재하면서 이화인의 동창회 이름 아래 함께 만날 수 없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화인들이 그 이유를 모르며 안타까워했고, 무척 한낱 한 자리에서 한 동창회 이름 아래 만나 함께 이화인의 정을 나누고 싶음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요한 목적을 위해 눈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은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은 듯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이화동창회는 몇몇 소수 동창회의 소유가 아니라 ‘이화를 나온 동창 모두의 것이라는 개념의 결집’이 가장 큰 장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듯이 아무리 두꺼운 얼음장도 그 밑으로는 물이 흐르듯이 이화동창들 개개인이 동창회는 우리 동창 모두의 것이라는 개념을 재인식하고 하나의 만남에 대한 희망을 꿈꾸며, 그 꿈을 펼쳐나갈 때 언젠가 우리 모두의 희망인 ‘한자리의 모임’의 꽃은 꼭 피어나리라 믿습니다.

멀리서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다가옵니다.

“참을성과 기다림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은 늘 조용히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장명주 (의대, 77)



의과대학 북미주 동창회 소식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에 결성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의 3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4년 1월부터 일하고 있는 오구미(의학, 78)입니다. 초대 이학혜('60) 회장님과 2대 김명미('67) 회장님께서 성심을 다해 의대 동창회 일을 담당해 주신 덕분에 이제 북미주 의대 동창회는 기반을 잡았고 두 분께서 희생적으로 수고해 주신 의대 동창회 사업을 인계받아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했던 사업보고를 드립니다.

첫째 북미주 의대동문들의 효율적인 networking 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선임 회장들께서 준비해온 400여명의 북미주 의대동문들의 주소록을 인쇄본으로 발간하여 작년 6월에 북미주 의대동창들께 발송하였습니다. 그 중 약 15% 정도가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 왔으며, 새로 알려진 후배동문들도 상당수가 있음을 감안하여 수정본 주소록을 다시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교에서는 김포공항 옆 마곡동에 부지를 마련하고 대망의 제2부속병원 및 의과대학 건립을 2018년 완공목표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공식 예배를 계기로 이를 위한 힘찬 전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제2의료원은 진정한 환자 중심의 명품 국제병원으로 규모나 시설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국제적인 경쟁력있는 병원으로 키울 비전과 전략목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북미주에서도 의과대학 동문들을 중심으로 건립기금 모금운동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학혜('60) 동문의

50만불 기부를 선두로 여러 동문들께서 약정해 주신 금액이 올 4월말 현재 백만불에 달하며, 이 중 두번에 걸쳐 20만불과 15만불이 작년 12월과 올 1월에 각각 모교로 보내졌습니다. 이 기금 모금은 병원이 완공되는 2018년까지 계속될 것이며, 의대동문들 뿐만아니라 타 단과대학 출신 동문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신 결과임을 이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협조를 위하여 의과대학 동문들께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셋째 작년 Los Angeles에서 열린 2014년도 이화여대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연례총회에서는 30여명 이상의 의대동문들이 북미주 각 처로부터 참석하셨고,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회칙 제정 및 통과 시키고 차기회장으로 오구미 현 회장을 연임 (2016-2017)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특히 이 회의에는 모교에서 이순남('78)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님과 대외협력실장 정성애교수(소화기내과장)께서 참석하여 앞으로 건립될 제2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소화기 특강까지 해 주셔서 큰 호응을 얻은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2015년도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총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가 열리는 New England Cruise (10/4 ~ 10/11) 선상에서 열릴 예정이며,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고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의 여러 가지 일에 격려와 협조 및 수고를 이끼지 않는 시카고 지역의 선후배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회장 오구미 (의대, 78)

제2부속병원 및 의과대학 건축을 위한 기도문

하나님, 새 땅에 제2부속병원과 의과대학 건축을 시작합니다. 새 집이 들어설 곳이 하늘의 기운으로 정화되게 하소서. 당신의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하소서. 건축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의가 앞서가며 길을 내시고, 우리는 선한 종이 되어 당신의 지혜를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초가 되고, 지난 세월 이화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기둥이 되고, 의료원과 학교의 발전을 바라는 이들의 기도가 들보가 되어,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이 완공되게 하소서. 당신의 선한 종들을 도우셔서, 그들의 수고가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하소서. 실력과 사랑으로 가장 신뢰받는 의료 기관이 되게 하시고, 세계 각 곳에서 고통을 안고 찾아온 이들이 몸의 나움과 영혼의 위로를 받는 곳이 되게 하소서. 새 시대를 선도하는 바른 의료인을 길러 내는 교육의 산실이 되어 이화의 기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화의의료원 발전후원회' 출범

제2부속병원 건립 모금 캠페인 확산

지난 4월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이화의의료원 발전후원회'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출범식에는 정의숙 전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이화여대 명예총장과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과 이순남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경효 이화여대 의전원장 겸 의대 학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오혜숙 의과대학 동창회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동창, 기부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화의의료원 발전후원회' 회장에 우복희 이화학당 이사가 추대되었으며, 고문으로는 정근모 한국전력공사 고문,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김순영, 조종남 전 총동창회장이 위촉되었다. 발전후원회는 교육·연구분과, 건축분과, 사회공헌분과, 국제분과로 나뉘어 새병원 건립 모금 캠페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학혜, 김정혜, 황정미, 이덕희, 오구미 동창 등 국제분과 소속 해외거주 위원들은 이날 참석은 못하였으나 '이화의의료원 발전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제2 부속병원과 의과대학의 건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다.

이순남 의료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2 부속병원과 의과

대학의 신축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며 "우복희 회장을 중심으로 많은 동문 및 후원자로 구성된 발전후원회의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화의의료원은 지난해 12월 건축을 위한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고, 올해 1월 16일 교직원과 동창, 기부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개시 기념 예배를 가지기도 하였다. 현재는 터파기용 흙막이 공사인 지하연속벽(슬러리 월: Slurry Wall) 설치와 지열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경 본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 건립되는 이화의의료원 제2 부속병원과 의과대학의 설계에는 '이화 힐링 스퀘어(Ewha Healing Square)'를 모티브로 '도전과 개척', '나눔과 섬김'이라는 이화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 환자를 위한 섬세함과 따뜻함을 품은 형태와 공간은 물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광장의 개념이 함께 구현되어 있다. 특히 1,000개 병상 규모의 첨단 국제병원 면모를 갖춘 제2부속병원은 미래 확장성 및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2단계, 3단계 추가 증축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의과대학은 기숙사를 갖춘 최적의 교육과 연구 환경으로 신축된다.



▲ 2015년 4월 27일 '이화의의료원 발전후원회' 출범식 사진



▲ 2015년 1월 16일 건축 개시 기념 예배 사진

이제는 누군가에게
배우는 삶을 살고자 하는

민경혜 동창 영문, 65



공자가 역경에 이르기를 ‘물은 습지로 흐르고, 불은 마른 것에 붙어 탄다. 군자에게는 군자의 벼이 있고, 소인에게는 소인의 벼이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내 주위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으며,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인생의 마지막 장에 들어서며 나는 과거 15년 동안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만나며 우정을 돈독히 해 온 많은 선배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과의 아름다웠던 많은 추억으로 깊은 행복감에 젖는다. 그러면서 동창회를 통한 이런 축복된 인연에 무척 고마운 마음이다.

10여년 전 북미주동창회 동창회보[Ewhaian]에 실렸던 나의 동기 동창 조정숙(영문, 66)동문의 글을 보고 같은 영희국민학교 동창생을 만나게 다리역할을 해준 계기로 나와 민경혜(영문, 65)동문과의 첫 만남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영문학도라는 공통점으로 쉽게 이야기를 나누며 해마다 총회에서의 만남을 통해 우정을 다져왔다. 그러면서 나는 민경혜 동창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며나오는 그녀만의 향기를 깊이 느껴보게 되었다. 자그마한 체구의 그녀에게는 수줍은 듯한 겸허함과 성실함이 보이며, 남을 배려하는 푸근함 속에 진지하고 때론 강인함마저 느껴지게 한다.

민동창은 얼마전 한국 영화 ‘국제시장(Ode to my father)’을 보고 아버지 생각에 많이 울었다고 했다. 6.25동란 때 피난도 못 나간 채 서울에서 아버지와 큰 오빠를 잃은 그녀는 그 후 소녀 가장으로서 전쟁 피해자로서의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단다. 극장에서 무성영화를 돌리며 영화상영 일을 하였던 아버님 생각에 영화를 볼 때면 그녀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보낸 많은 극장에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고 그녀의 애절한 심정을 털어 놓았다.

과거 10여년 미국이 아닌 멀리 Vancouver Canada에서 해마다 북미주동창회에 참가하며 아름다운 이화인들을 만나서 친교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은 썩 풍요로워졌고 여러면으로 충전을 많이 받아왔다고 고마워했다. 앞으로는 북미주동창회 장학사업 등 뜻있는 여러가지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성원할 마음이란다. 이제는 자신도 동창회를 위해 기꺼이 봉사할 마음이 되어있다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민동창은 큰언니의 소개로 1956년 여름 8th US Army 내 도서관장인 Miss Mary Keach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알선으로 Woman's Village에서 전화받는 일로 취직을 하고 청파동에 있는 신광여고 야간학교 공부를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도 “배워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이렇게 마음에 새기며 하루 하루 일과 공부에 전력을 다 했다.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는 민동창을 지켜보던 그분은 정신적 또 물질적 후원자가 되어 주었고, 민동창은 고마운 그분을 어머니로 대하는 깊은 인연을 쌓아가게 되었다. 미국으로 돌아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서신으로 만남이 이어졌고 마침내 그분은 경해동창을 만나기 위해 1990년에는 Vancouver로 찾아왔었다고 들려준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가슴으로 맺은 푸른 눈의 어머니의 고마운 사랑은 본인의 마음 한 구석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고...

대학진학을 위해 1960년에는 야간에서 주간으로 옮겼고, 대학진학 준비 학원까지 등록하여 밤 늦게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여 1961년에는 이화여대 영문과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영문과 합격 통지를 받게되는 기쁨을 얻었으나 그녀는 비싼 등록금을 마련해야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고민속에 있던 민동창에게 당시 8군내 Recreation Center에서 special services로 craft shop에서 일하는 문관인 두 여인 Dorothy Goddard와 Syble Adam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큰 축복이었다고 그 때를 돌아보며 이야기했다. 학기가 시작될 때면 으레히 60세쯤 되보이는 푸른 눈의 두 할머니들은 경해동창을 내자동에 있는 숙소로 불러 정성이 듬뿍 담긴 등록금 봉투를 건네 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곤 했단다. 민동창은 그 고마웠던 두분의 은혜에 마음 이 벽차 잠시 눈물을 글썽거렸다. 등록금을 감사히 받으며 후에 어떻게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가 있는지를 묻는 그녀에게 자상한 두 할머니께서는 “훗날 경해양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풀어 달라”고 조용히 이야기 해주었다고 회고했다.

1965년 영문과를 졸업한 민경혜동창은 이분들의 추천으로 5년간 8군 도서관 내 Circulation & Catalogue 부에서 일하던 중 1970년 5월 Federal Government Clerk으로 캐나다로 이민왔다.

경해동창은 Canada Vancouver시에서 UIC(Unemployment Insurance Commission)의 clerk으로 일할 때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소개로 지금의 부군이신 원상희씨를 만나 1971년 9월 25일 결혼을 했고 슬하에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 3명을 두고 있다. 민동창은 1990년에 20년간 일해 온 정부 공무원 일을 은퇴한 후 지금은 치과 기공업을 경영하는 부군을 돕고 있다.

그동안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분주히 살아 왔다고 말하는 민동창은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여유있게 준비하며 남을 위해 봉사도 하며 배우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녀는 현재 비영리 단체인Vancouver Korean Canadian Womans Society의 5명 이사에 속하며, 이 단체는 coffee shop을 운영하여 매주 노숙자들을 돕고있다. 현재 북미주동창회 수석 부회장으로 있는 민경혜 동창이 회장으로 봉사하게 될 2016년 Vancouver 연례 총회가 썩 기대된다. 조용한 모습으로 또 차분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여 우리들을 놀라게 해 줄 그때가 은근히 기다려진다.



▶ 밴쿠버를 찾아 온 가슴으로 맺은 어머니 Mary Keach 여사의 모습



▲ Café Espoir 에서 봉사하는 다른 사단법인 밴쿠버 여성회 이사들과 함께

2015년 북미주동창회 장학사업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는 사회의 발전을 위한 활기찬 소망과 인품이 성실하고 성적도 우수하며 창의성있는 인재들의 학업진도를 후원하는 장학금을 2003년에 설립하고, 2004년부터 연속 12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화인들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2015/2016년도에도 총 \$10,000의 장학금을 선정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에게 수여할 계획입니다. 자격은 북미주에 유학 오는 이화여대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북미주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자녀 학생들이면 해당됩니다. 장학금 신청서는 www.ewhaian.org에서 download 하면 됩니다.

장학금은 유학을 지망하는 모교의 인재들과 북미주에 있는 이화인의 자녀들의 학업을 장려하면서 그들이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힘을 보태주고 싶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망한 인재들이 그들의 꿈을 키우고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뜻 깊은 이 사업의 성공은 동문 여러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므로 적극적인 후원을 기대합니다. 여러 동문들의 후원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인도적인 사회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14/2015년에는 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여러면에서 실력있고 자랑스러운 지원자들이 장학금을 신청하였고, 그 중 2명의 유학생과 7명의 동문 자녀들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중 5명이 대학생이고 4명이 대학원생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www.ewhaian.org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장학금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에서는 북미주에 유학 오는 이화 대학생, 대학원 학생과 북미주 동창들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서는 www.ewhaian.org에서 download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2), 재학증명, essay등 입니다.

각 전공 분야에서 우수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중 2015년도 장학금 총 \$10,000를 아래와 같이 수여할 예정입니다.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offers scholarships to Ewha University graduates who are pursuing their education in North America, and college students who are children of Ewha Alumnae in North America.

The application form can be downloaded from www.ewhaian.org. The required documents are an application, an official copy of your academic record,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a copy of your school registration and an essay.

The scholarship amount is \$10,000 for the academic year 2015/2016. Scholarships will be awarded to students who are excellent in their chosen field, possess leadership qualities and are in need of financial assistance.

Application: download from www.ewhaian.org

Deadline: August 31, 2015

Send to : Heather Shorack

4926 Regla Court, San Diego, CA 92122

Email: hshorack@san.rr.com



As the recipient of the 2014 Ewha Alumnae Association Scholarship, I am endlessly grateful to those that made this scholarship possible.

In my first quarter at Dartmouth, the scholarship has helped lift the financial pressure off my back and has allowed me to focus on my academics and pursue my extracurricular interests.

Your kind generosity serves as a constant reminder and motivation to endure challenges and work tirelessly to pursue my goals. As I have only just begun my college career, I am inspired to give back to my community just like many you have given back to many college students over the years.

So once again, thank you for awarding this prestigious scholarship.

Kang Min Daniel Lee



Hello! My name is Jihyeung Jang, and I have just completed my first year of studies at the USC School of Pharmacy. Ultimately, my goal in pursuing a career in pharmacy is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patients' lives through my expertise and compassion. I am especially concerned for delivering quality health care for Koreans and Korean Americans in Southern California. I understand the difficulties that many people face when acquiring health care, based on my own family's experiences as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I hope that as a practicing professional, I will be able to provide for the populations that still do not have access to health care and make myself readily available as a resource. I am extremely grateful for this scholarship award from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because it reduces the financial burden of my education, so that I will be able to more fully devote myself to my professional development. This scholarship award is encouragement to continue to excel in school as a student, and a reminder of what my responsibility to the community is as a health care professional. I would like to thank EWUAANA again for the scholarship award.



My name is Hye Rin Lee (Lily) and I am currently a sophomore at Williams College.

Learning within the liberal arts education system has increased my passion and interest in the social sciences as I plan on pursuing a major in History and continuing academia at law school in litigation or graduate school in social history.

As a 1.5 generation Korean-American, I have always viewed education as the key to many great opportunities.

As I continue to work hard to achieve my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goals, this EWUAANA scholarship will serve as an important memento for me to become the successful person I hope to be.

Thank you.



I am honored to receive the EWUAANA scholarship this year. Thankfully, I could get the chance to go to Citi Soleil, Haiti for missionary work with your support. It was precious time for me as an environmental engineering Ph.D. student. I saw firsthand just how destructive the 2011 earthquake was and how much still needs to be done to help.

However, I got a sense of how to help next on their road to recovery. They need access to clean water. Our team identified ways to extend and improve the current water filtration system. It really put into perspective how grateful I am for the life I live. It is an honor receiving this award from the esteemed alumnae of Ewha University, and I will continue the tradition of supporting young students in the future.

Thank you again for awarding me the scholarship.

Best Regards, Inyoung Kim / Ph.D. candidate /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 University of Delaware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께,

먼저 2014년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장학금을 받게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동포사회와 미 주류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존스홉킨스 폴니츠 고등 국제학 대학원(SAIS: Johns Hopkins Paul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에서 국제 경제학과 국제 관련학을 연구하며, 미국 외교정책과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졸업후 미 국무부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국제 핵안보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대학원 학자금을 위해 정부기관 대출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충당하던 중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장학금을 받게돼 새로운 활력과 재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찬 나 올림

2014 총회 보고



한영숙 (영문, 60)

2014년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 연례총회는 California Style로 정하고 LA Downtown에 있는 Biltmore Hotel에서 개최했습니다. 총회를 마친 후 서해안 바다를 즐길 수 있는 2박 3일의 여행을 하였습니다.

김명미 회장님은 총회 총괄은 물론 북미주 의대 동창회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았고 조효은 서기는 미술 전시회 총관리, 임성숙 사무총장은 여행을 담당 그리고 저는 총회 행사를 맡아서 각자 치밀한 계획과 함께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첫날인 9월 26일(금)에는 일찍 도착한 동창들에게 도시락을 대접하면서 2014년 행사는 시작 되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장명주 이사장의 사회로 이사회가 있었으며, 중요한 토의사항으로 앞으로 총회 준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총회 준비위원회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동의해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6시부터 본교 의과대학 교수 정성애 박사의 마곡 제2 부속병원 건립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김화진(사생, 74) 동창의 사회로 참석한 동문들의 인사 소개가 있었으며 Line Dancing도 하면서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7일(토) 아침 9시에는 북미주동창회의 자랑인 workshop program이 있었습니다. 정성애 박사의 'Y (young) S (senior)' 라는 주제로 100세 건강 관리 (변비에서 암까지) 라는 명강의와 Mary Hong (Merrill Lynch Wealth Management Advisor)의 상속 및 은퇴 후 재정관리에 관한 강의를 마치고 활발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점심에는 한인타운에 있는 유명한 전통 한식집 용수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LA의 명소인 Getty Villa를 방문했습니다. Getty Villa 는 Oil Tycoon 인 J. Paul Getty 가 이태리 1 세기의 Roman Villa를 모방하여 바다가 보이는 Malibu 언덕에 지은 아름다운 Villa 입니다. 이날 유난히 화사한 가을 날씨와 함께 많은 동창들이 Malibu 해안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오후 4시에는 북미주 의대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의대 모임에서 본교 이순남 의료 원장님의 마곡 제2 병원 건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이날 무려 백만불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 했습니다. 북미주동창회에서 의료원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2 년전 서현숙 전 의료원장님께서 본교 의과대학에서 선정한 제5회 박 에스터상을 배게자 (의대 65) 동문께 수여하시러 LA를 방문 하셨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김명미 회장님께서 LA 근교에 살고있는 70여명의 동창과 귀빈을 모시고 오찬 행사를 성공리에 진행 하였고, 서현숙 전 의료 원장님께서 이 행사에서 마곡병원

건축 계획과 그동안 의대 발전사를 설명하시면서 북미주에 살고있는 동창들의 참여를 부탁하신 것이 계기가 되어 이순남 의료원장님의 방문을 계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녁 6시 30분에는 강정애(의대'67) 동창의 기도로 만찬회 식사를 시작했고, 식사 후 조찬선 목사님의 기도로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명미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서 이순남 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님의 축사와 더불어 마곡 제 2 병원 건립에 대한 presentation이 있었습니다. 또한 송복진 전 회장과 구광자 전 사무총장께 감사패 증정 및 김정희 (가정'60) 동창에게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어서 조효은 장학위원장의 장학부 보고, 이영희 차기 회장 인사, 민정혜 수석부회장 인준 그리고 오구미 의대 동창회 회장의 제2 부속병원을 위한 모금 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2부에는 김화진 동창의 사회로 여흥이 시작되면서 특별 출연으로 조원직, 조영은 부부의 Saxophone 과 piano 축하연주가 있었고, Washington D.C., Chicago, LA 등 지역 장기자랑이 흥을 더 했습니다. 또한 Live Band 에 맞추어 신나게 춤을 추며 밤은 깊어 갔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흥겨움이 남아있는 채 2014년 연례총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28 일(일) 오전 9시에는 최경숙(영문, 66) 동창의 사회와 이수훈 목사님(화학, 59)의 인도로 예배를 드린 후, 동창회 평가 및 건의사항의 시간을 가졌고 11시에 동창회 공식 행사를 마쳤습니다.

동창회를 마치고 추가 일정으로 90여명의 동창과 일행은 Bus 2 대를 타고 California Style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 여정은 회장님과 사무총장이 미리 현지 탐방을 해서 이화 동창들만이 즐길 수 있도록 특별 여행코스를 기획한 특색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북가주 Salinas에 있는 Nobel 수상자 John Steinbeck Center, 아름다운 서해안을 따라 위치해 있는 세계적 절경 17 Mile Drive, 미국에서도 유명한 Pebble Beach Country Club 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 Redwood Park에서 산보를 하며 심호흡을 하면서 에너지 재 충전의 시간도 가졌고, 이번 여행의 Highlight인 Pismo Beach에서는 바닷가 절벽 위에 위치해 있는 호텔에 머물면서 서해안 해변 광경을 만끽하며 선후배간의 멋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피로했던 여독을 Whirl Pool에서 풀기도 하고, 끝없는 서해안 바다를 바라보며 오손도손 즐거운 담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태평양으로 찬란하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신비롭게도 가파른 절벽 위에 둘러진 산책길을 걸으면서 신의 작품에 감탄했습니다. California의 해변을 가슴에 담고 돌아오면서 Solvang에서 Danish style의 점심을 먹고 Santa Barbara에 있는 Reagan Center에도 들러 Reagan 전대통령의 인품과 그분의 업적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Berlin 벽이 무너진 역사를 목격하며 언젠가 한국에도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으리라 손꼽아 기다려 보았습니다. 이렇게 2014년도 연례모임은 California Style로 기획된 여행과 함께 멋지게 마쳤습니다.

2014 Ewha Art Exhibit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미술 전시회

Participating Artists

강영미	서양화 84
고순	교육 71
김정선	조소 85
김정화	조소 82
김진자	서양화 65
김홍자	섬예 58 입, 07 졸
류명숙	조소 77
신혜	섬예 92
윤영자	자수 67
정나경	서양화 71 입
정옥지	동양화 65
정혜전	동양화 90
조미영	동양화 85
조효은	교육 71
최석진	도예 83
한순정	서양화 59
한은경	조소 94
허재희	섬예 85
홍경애	서양화 78
최우혁	2D Media 전공, 2010, 교환학생
김택수	이대 북미주 동창회 전임 사진작가

지난 가을 Los Angeles에서 열린 이화 북미주 동창회 연례 총회 기간 (9월 26일 ~ 28일) 중 열린 이화 동문 미술 전시회는 20명의 작가들이 55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이 전시회는 '선택한 삶 (Chosen Homeland)'이라는 주제로 김홍자 교수께서 Curate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의로 선택해 살아 온 미국에서의 삶, 이 안에서 느끼는 갈등, 동경, 화합, 융화 등등, 작가들이 여러 장르의 배경으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창작 활동에 정진하는 동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동창회에 참석한 동문들과 나눔의 기회를 가지는 데 목적을 둔 이 전시회는 올해로 네번째로 매우 긍정적인 호응을 받은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또한 작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동창회 Art Fund 기부금으로 받았습니다.





EWHA WUANA 2015





EWHA WUANA 2015



2015년도 임원 명단

직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거주지	부서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거주지
이사장	김 명 미	(의대 67)	Los Angeles, CA	연예부	구 은 서 *	(간호 73)	Chicago, IL
회장	이 영 희	(국제사무학 73)	San Diego, CA		김 화 진	(사생 74)	Los Angeles, CA
제1 부회장	민 경 해	(영문 65)	Vancouver, BC	음악부	이 명 혜 *	(음대 74)	Washington, DC
사무총장	임 성 숙	(물리 81)	Los Angeles, CA		김 소 영	(불문 63)	San Diego, CA
준비위원장 & 총무	한 영 숙	(영문 60)	Los Angeles, CA		윤 미 라	(기악 60 입)	San Diego, CA
서기	정 해 주	(약학 67)	San Diego, CA		김 원 숙	(작곡 69)	Los Angeles, CA
	송 희 영	(행정 85)	Chicago, IL	홍보부	김 희 영	(피아노 75)	Chicago, IL
회계	이 혜 리	(사생 60)	Los Angeles, CA		권 오 화 *	(가정 61)	Chicago, IL
감사	윤 중 식	(의대 59)	Chicago, IL		이 동 우	(영문 57)	Hernando, FL
자문위원	조 용 옥 *	(의대 59)	Chicago, IL		권 영 애	(의대 64)	Las Vegas, NV
	이 학 혜	(의대 60)	Memphis, TN		윤 용 임	(의대 64)	Rifton, NY
	김 정 희	(가정 60)	Chicago, IL		조 정 기	(의대 66)	Madison, WI
	이 희 련	(의대 63)	Las Vegas, NV		박 선 영	(가정 66)	Columbia, MD
	김 명 미	(의대 67)	Los Angeles, CA		안 미 사	(신방 67)	Temecula, CA
	김 광 자	(불문 66)	Washington, DC		권 영 자	(의대 68)	Seattle, WA
	최 경 숙	(영문 66)	Southern NJ		이 삼 희	(가정 68)	Morganville, NJ
	조 효 은	(교육 71)	San Diego, CA	회원부	김 화 숙	(약학 68)	Los Angeles, CA
공천위원	이 영 희 *	(국제사무학 73)	San Deigo, CA		송 희 영	(행정 85)	Chicago, IL
	이 정 은	(가정 60)	Citrus Hills, FL		김 계 자 *	(신방 65)	Las Vegas, NV
	권 오 화	(가정 61)	Chicago, IL		임 삼 규	(영문 54)	Las Vegas, NV
	민 경 해	(영문 65)	Vancouver, BC		김 초 영	(사생 60)	San Francisco, CA
	장 명 주	(의대 77)	Sioux Falls, SD		한 수 강	(영문 65)	Las Vegas, NV
모금위원	한 영 숙 *	(영문 60)	Los Angeles, CA		안 영 설	(의대 64)	Rome, NY
	김 광 자	(불문 66)	Washington, DC	장학부	장 현 자	(의대 67)	Los Angeles, CA
	구 광 자	(가정 67)	Chicago, IL		홍 명 희	(의대 69)	Chicago, IL
	오 구 미	(의대 78)	Chicago, IL		이 정 화	(수학 81)	Chicago, IL
	오 유 심	(의대 76)	Chicago, IL		민 창 순	(간호 84)	Chicago, IL
재정관리위원	김 정 희 *	(가정 60)	Chicago, IL		조 효 은 *	(교육 71)	San Diego, CA
	김 희 영	(피아노 75)	Chicago, IL		유 진 순	(심리 57)	Chicago, IL
회칙개정위원	김 명 미 *	(의대 67)	Los Angeles, CA	교육부	이 상 인	(의대 57)	Orlando, FL
	이 주 연	(의대 59)	Plano, TX		윤 중 식	(의대 59)	Chicago, IL
	한 영 숙	(영문 60)	Los Angeles, CA		윤 영 희	(의대 70)	Welsh, LA
	이 화 섭	(약학 60)	Chicago, IL		고 순 정	(의대 77)	Los Angeles, CA
	최 경 숙	(영문 66)	Southern, NJ	미술부	김 영 희 *	(약학 68)	Chicago, IL
	윤 방 순	(정외 69)	Seattle, WA		이 품 자	(영문 62)	Chicago, IL
사회봉사부	심 현 숙 *	(사복 62)	Minnesota, MN		윤 방 순	(정외 69)	Seattle, WA
	오 금 녀	(영문 49)	Minnesota, MN		배 계 자	(의대 66)	Los Angeles, CA
	안 정 옥	(의대 73)	Los Angeles, CA		김 홍 자 *	(섬예58입07졸)	Washington, DC
예배, 선교부	안 정 옥 *	(의대 73)	Los Angeles, CA		정 옥 지	(동양 65)	Washington, DC
	고 인 나	(교육 60)	Washington, DC		이 희 자	(실내장식 65)	Washington, DC
	강 정 애	(의대 67)	Los Angeles, CA		오 구 미	(의대 78)	Chicago, IL
	김 진 희	(정외 87)	Chicago, IL	편집부	서 동 주	(도예 82)	Chicago, IL
	오 정 숙	(서양 88)	Washington, DC		하 양 신	(가정 87)	Chicago, IL
	* Chair person				최 경 숙 *	(영문 66)	Southern, NJ
					유 진 순	(심리 57)	Chicago, IL
					이 정 순	(화학 57)	Chicago, IL
					구 광 자	(가정 67)	Chicago, IL
					호 진 희	(가정 68)	Los Angeles, CA
					성 유 나	(영문 79)	Chicago, IL
					임 성 숙	(물리 81)	Los Angeles, CA



여름 영성

오문강 (기독교문학, 65)

친구여
여름 창가에 앉아 그리운 너를 생각한다
창문을 열자마자 너는
싱그러운 바람으로 햇살같이 가벼운 몸이 되어
여전히 내게로 달려오는데
오늘도 너는 맨발이구나

뒷뜰엔 백일홍 곱게 피어
너 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데
맨발인 너를 보면
왜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
찬란한 슬픔도 사는 기쁨이란 것

친구야
우리가 눈물나도록 사랑했던 자리마다
나무들이 푸르게 잘 자라서
울창한 숲을 만들었구나

그 속에 우리들이
한 그루 정직한 나무로 서 있구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세 글자
이.미.니
그 이름 가진 우리를
오늘은 열 다섯 살 싱싱한 푸른 아이가
여름을 노래한다

사랑합니다 이.미.니
위대한 여름!
당신이 만드셨습니다

詩



이화의 여인들

박윤수 (현주 약대, 55 부군)

이화를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여
로스안젤스 한복판에 모인 이화의 여인들
신념이 가득한 그들
원대한 꿈을 안고
모여든 아름다운 이화의 여인들

키워준 이화의 옛 동산이 그리워
스승과 선후배와 친구들이 그리워
웃음과 눈물로 반기고 껴안고
옛 추억과 쌓아둔 생각을 나누고자
모여든 아름다운 이화의 여인들

그 들은 진선미를 외쳤다
참된 진리와 선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기위해
다짐하며

모여든 아름다운 이화의 여인들

모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조국의 어머니가
자애에 가득 찬 어머니가
또 의로운 아내가 되려고
모여든 아름다운 이화의 여인들

북미주동창회 창립

15주년 맞이 좌담회

일시

2015년 2월 13일

이영희 회장 자택: San Diego, CA

참석자

김정희 (초대 총회 준비위원장)

최경숙 (4대 회장)

한영숙 (7대 회장)

조효은 (11대 회장)

장명주 (12대 회장)

김명미 (14대 회장)

이영희 (15대 회장)

민경해 (차기 회장)

이혜리 (회계)

임성숙 (사무총장)

기록/정리

임성숙, 최경숙



최경숙 (영문, 66) : 다들 바쁘신 가운데 멀리서 북미주동창회 창립 15주년을 맞아 기념하는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임을 위해 기꺼이 자택까지 내어 주신 이영희 회장님과 부군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동창회의 변화와 발전을 진솔히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대 준비위원장이셨던 김정희 동창님의 동창회 창립 당시의 이야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가정, 60) :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130명 이상의 발기 이사진이 구성되어 체계적인 준비아래 2001년 5월에 북미주 총동창회가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에서 창립되었습니다. 동창회를 통해 1만여 북미주에 산재해 있는 동창들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모교를 도우며 상호지원을 도모하고, 여성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동창들의 재능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우리들의 삶을 좀 더 의미있게 하였고, 가치있는 목적을 위해 한국사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주 사회에도 비전과 활력을 불어 넣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어서 흐뭇하고 아름다운 동창들의 많은 이야기가 동창회보에 소개되고, 해마다 총회 만찬에서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을 표창해 왔습니다.

최경숙 : 참석치 못하셨지만 전화로 통화한 조용옥 초대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옥 (의대, 59) : 창립 당시 본 동창회는 동창 상호간의 친목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모교가 21세기의 세계화를 지향하며 발전하는데 주춧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본 동창회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모교를 위한 모금활동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재단과 협조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못지 않게 더 많은 동창들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모교를 도울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Web-Site설치 및 운영과 동창들의 바른 연락망인 주소록 발간에 주력했습니다.

김정희 : 많은 동창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참여는 동창회의 원동력이 되었고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을 비롯하여 북미주에 유학오는 후배들과 동창들의 자녀들에게 수여하는 장학사업, 뉴욕에서 시작된 불우여성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 지원, 한국의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건립 후원금, 북한 고아 어린이들 돕기 그리고 마곡 제2 부속병원 건립을 위한 모금 등 각 분야에서 그 활동과 봉사의 폭을 넓혀 왔습니다.

최경숙 : 우리 동창회의 진수인 동창회보 변천사에 대해 초대 편집장이셨던 안미사 동창과 구광자 그리고 유진순 동창님의 당시 회보 만드신 이야기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사 (신방, 68) : 동창회는 모든 북미주의 이화인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모임이니 만큼 처음부터 동창들을 위한 동창회로 그 소식을 전하고자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당시 창립 준비위원들은 마음을 합하여 총회를 준비하고 또한 창간호 동창회보 만드는 일에 순수한 열정을 바쳤습니다. 기사를 쓰고 또 Bay Print 회사에 가서 교정을 보고 동창집에 함께 모여 며칠간 일일이 주소를 써서 발송했습니다. 2001년 처음으로 북미주 전 지역의 동창들의 활동소식을 전할 수 있는 8 page 의 흑백 Newspaper Style 의 [Ewhaian] 창간호가 발간 되었습니다.



구광자 (가정, 67) : 저희가 처음 회보 만들었을 때는 손수 기사를 써서 신문사에 가져다 주고 편집, 교정도 직접 가서 했었어요. 회보를 통해서 북미주 방방곡곡에 퍼져있는 이화인의 모습을 찾는 일은 참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이화인들 - 작가들, 음악인들, 미술인들 그리고 이화의 사위들의 활약을 알리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북미주에서 뿌리를 내리는 동창들의 진솔한 삶, 그들의 도전 모습을 실으면서 자랑스러웠고 원고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회보에 실어 드렸던 본인들을 직접 총회 모임에서 만났을 때는 참 신기하고 무척 반가웠지요. 북미주 동창회의 모토 '동창은 이화가 배출한 보배, 우리의 생동력은 이화의 보람' 얼마나 맞는 말인지!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요즘 동창회보의 'EDITORIAL'도 좋고 '동창탐방'과 '동창소식'등 동창들의 얘기에 관심이 갑니다. 회보를 통해 알게 되었던 훌륭한 동창들 중 15년이란 세월 속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어서 안타깝고 그립습니다. 점점 더 젊은 후배 동창들이 많이 참석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도 알찬 회보를 기대해 봅니다.



유진순 (심리, 57) : 대학 4학년 시절 교수의 권유로 대학신문 출판부에 참가했을 때 최완복 교수로부터 편집의 기초지식을 배우고 서울 신문사에 가서 이대신문을 편집하고 교정하던 경험을 더듬으며 2004년 16 page 의 [Ewhaian]을 편집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편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원고 수집에는 여러 동문들과의 의견교환이나 서신연락등 눈에 보이지 않는 끈기있는 책임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열정적인 동문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지요. 출판사에서 초판이 준비되면 교정하는데 대여섯명의 동창들이 모여 함께 교정을 보는 등, 동창들의 이화사랑을 실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수두룩 합니다. 정말 뜻있게 보냈던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6년에는 처음으로 잡지형태로(Magazine) 출간한 것이 특이하다고 하겠어요. 덕분에 동문들의 모습을 원색 사진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된 것도 좋은 발전이거니와 오래 보관해도 손상 없이 항상 아름다운 모습의 책자로 간직할 수 있게 되었지요.

최경숙 : 과거 세분 편집장 외에 김영희, 김효정 동문들과 여러 편집위원들의 수고로 해마다 아름다운 동창회보가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북미주의 두 동창회(북미주 총동창회와 북미주 지회연합회)가 통합되었던 해에는 공동 편집장(구광자, 이정형동창)의 수고로 지금의 동창회보 [북미주 이화동창]을 발간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동창회보의 이름을 '북미주 이화동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5년 간 편집장으로 수고해 온 임성숙 동창의 숨은 이야기와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숙 (물리, 81) : 2011년부터 full color와 화보형식으로 동창회보를 편집하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또한 북미주 여러지역에 흩어져 살며 미 주류 사회의 여성 지도자들로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화인들의 동창 활동소식을 전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동창회보를 통해 오랫동안 궁금했던 옛 동창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어서 무척 반가웠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더욱 힘이 나곤했지요. 앞으로 [북미주 이화동창] 동창회보는 일정 틀에 잡힌 잡지책이 아니라 북미주에 살고 있는 이화인들의 진, 선, 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경숙 : 이자리를 통해 특징있었던 과거의 총회모임을 회고해 보는 것도 꽤 의미있으며 앞으로 총회를 유치하실 동창님들께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영숙 (영문, 60) : 2002년 4월 Washington D.C.에서의 총회모임 때는 Glendening메릴랜드 주지사가 북미주 동창들의 각 지역마다 전문분야에서의 지도적 역할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함을 기리는 뜻으로 그 한 주간을 'Ewha Woman University Week'으로 선포를 했었습니다. 신문마다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으며 참석한 동창들이 모두 기뻐했던 그때 일이 생생 합니다.

김정희 : 2003년 9월 뉴저지 Teaneck에서 열린 제 3회 총회에서는 이윤경 동창이 주관한 동창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무료 컴퓨터 속성 강좌가 큰 호응을 받았지요. 그때 교육 받은 5명의 동창들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이 소외된 이웃을 상대로 시작한 퀴즈의 성 프란치스코 집 컴퓨터 교실에 북미주동창회는 해마다 \$2000의 후원금을 지원해 왔어요.

최경숙 : Los Angeles에서 열렸던 2007년 9월 총회 때는 미 하원 본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에 대한 절대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동창회에서 성 금한 \$3000을 그 해 10월 3명의 동창들이 한국정신대 대책 위원회를 방문하여 윤미향 대표에게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건립기금으로 전달 했습니다. 2012년 5월 개관한 박물관을 김광자 전 회장과 제가 방문, 다시 \$3000의 후원금을 전달했지요. 지금도 당시 박물관을 둘러 보며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며 피해자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시려오는 기분이예요.



장명주 (의대, 77) : 동창들의 추천으로 2012년에 처음 시도했던 Alaska Cruise 여행을 겸한 총회모임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상외로 많은 동창들과 부군들이 참석하셨고 선상에서의 총회도 잘 진행되었으며 무엇보다 이화인들이 함께 경이로운 Alaska 자연의 웅장함을 관광하며 즐겼던 것 같습니다. 추가여행은 2007년 한영숙 회장님이 LA총회 후 Yosemite/ San Francisco의 관광지를 2박 3일간 버스 여행하며 시작했고, 2008년 Orlando, FL 총회 후 버스 2대로 미국 최남단 Key West까지의 여행은 멋진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영희 (국제사무학, 73) : 크루즈여행이 인기가 많아 2015년 연례모임도 누구나 한번은 꼭 가 보고 싶은 7박 8일의 Canada/New England 단풍구경 크루즈 여행을 택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작년 LA에서의 총회 후 2박3일의 관광여행도 추억에 남는 좋은 여행이라고 들 해요. 앞으로 총회 준비위원들은 추가여행 계획을 재미있게 짜야할 것 같습니다.



조효은 (교육, 71) : 연례모임에서 동창들이 좋아하는 또 한가지는 Art Exhibition 이에요. 주최측의 많은 수고와 비용이 꽤 들지만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하며 즐기는 동창들의 호응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2010년 Las Vegas 총회 때 위싱턴 이화동창 작가들의 작품을 김홍자 선배님이 나레이터를 겸한 슬라이드 쇼가 그 시작이었어요.

한영숙 : 2011년 조효은 회장님이 San Diego에서 주관한 총회 때 Art Show "Revival"은 격조 높은 전시회이었어요. 아름다운 뮤직과 함께 와인을 곁드린 꽤 운치있었던 전시회로 두고 두고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21명의 미대 동창들이 참가하였고 출품된 작품 판매의 일부를 동창회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2013년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 Art Gallery에서 12일간 전시했던 동창 미술전은 26명 동창 artist들이 참여 명실공히 전시회로서 자리를 잡았지요. 특별히 이 전시회는 위싱턴 지역 동창회 회장으로 봉사하던 중 작고하신 고 김경애(서양화, 68) 동문의 작품 4점도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전시 및 auction으로 \$10,000이상의 고 김경애 Memorial Fund가 모금되었습니다.



민경혜 (영문, 65) : 2013년 시카고의 문화회관에서 열린 전시회를 관람하며 저도 크게 도전을 받아 그 후 강의도 들으며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4년 Biltmore 호텔에서 전시회도 고품격의 멋진 전시회였어요.



이혜리 (사생, 60) : 작년 L.A.의 전시회는 'Chosen Homeland'라는 주제로 열렸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미대 동창들과 비전공자로서 예술활동을 하고있는 동문들의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매우 흥미로웠어요.

최경숙 : 여러분은 북미주동창회가 2001년 5월 Chicago에서 창립과 동시에 모교돕기와 교육, 장학, 문화, 봉사 사업을 포함한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고무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총 동창회 (EWUAANA)]를 Illinois주에 등록하고 미연방 국세청에 비영리단체로 인정받아[IRS tax code section 501(c)(3)]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모교와 동창회 사업을 위한 모금을 꾸준히 해 오고 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정희 : 2003년 장학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하여 이상인(의대, 57) 동문이 초대 장학위원장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이듬해에는 이현우(영문, 03) 재학생에게 동창회와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윤방순 교수부부의 주선) 그리고 Steve Kang Memorial Scholarship이 함께 공동으로 등록금과 \$10,000의 학비를 수여했습니다. 그 후 계속 3명의 모교 유학생에게 전액 등록금과 학비를 지원해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조효은 : 현재 북미주동창회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활기차고 인품이 성실하며 우수한 성적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들을 후원하는 장학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12년째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10,000의 장학금을 마련하여 총 6~9명의 이화 유학생이나 북미주 어느 지역에 살든지 관계없이 동창들의 자녀에게 나누어 지불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들은 감사의 편지를 통해 자신들에게 베풀어 준 북미주동창회의 따뜻한 도움을 결코 잊지 않고 베품의 정신을 배워서 나중에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혜리 : 총회모임 때 등록을 받다보면 의대 동창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북미주동창회와 북미주 의대 동창회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최경숙 : 북미주 의대동창회 초대회장이셨던 이학혜(의대, 60)선배님께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학혜 (의대, 60) : 2009년 Denver에서 열렸던 북미주 통합 동창회 총회모임 때 '북미주 의대동창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목적은 동문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 세계 엘리트 의과대학으로 발전한 모교의 의대를 더욱 빛내자는 데 있었습니다. 첫 돌 사업으로 국제재단의 의학

연구기금(Medical Research Fund) 확장운동을 펼쳤습니다. 의학 연구기금은 조용옥(의대, 59) 선배 중심으로 1995년에 설치되었고, 그 후 정문자(의대, 66) 동문의 모금운동으로 약 \$170,000 기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약 \$212,000로 확장, 2011년 부터 \$20,000이 의대 연구자금으로 매년 송금되고 있습니다.

장명주 : 2014년 LA에서 열린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 모임에서 의과대학 동창회(오구미 회장) 총회가 따로 열렸고, 회의에서 의과대학 연례총회 모임을 북미주동창회 연례모임 기간 중에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대 동창들은 해마다 의과대학 총회는 따로 하지만 북미주동창회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Workshop program과 총회 후 잘 짜여진 추가여행을 다들 좋아하여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김명미 (의대, 67) : 이순남 의무부총장겸 의료 원장팀이 2014년 LA에서 열렸던 북미주 동창회 연례모임에 참석하여 의료원의 발전과 제2 부속병원 건립을 위한 청사진 발표와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는 소중한 뜻을 전했을 때 북미주 이화동창들은 2017년에 완공을 목표로 1200병동의 제2 부속병원 건립을 적극 후원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hicago 지회 동창회에서 \$50,000을 기부하는 것으로 시작해 이학혜 동문의 \$500,000 기부에 이어서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에서 \$450,000 이상을 약정했습니다. 2박 3일의 총회가 끝나기도 전에 100만불이 넘는 모금과 약정의 결실을 올렸던 것은 동창들의 뜨거운 모교사랑의 결실이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동창들에 의한 동창들을 위한 친목단체인 [동창회]와 모금 기관인 [국제재단]은 서로 독립된 기관이며 앞으로 언제나 모교를 위한 상호협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숙 : 오랜 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신 참석자 모든 동창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wha for World





신정순 (국문, 79)

코끼리의 귀속말

얼마 전 김도연의 <코끼리의 귀속말>이란 단편소설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2014년도에 미동부 한국 문인협회에서 발행한 <뉴욕문학>이란 문예지를 통해서였다. 이 소설은 놀랍게도 재미작가들의 작품 수준이 대체로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통상적인 평가를 뒤엎어주고 있었다. 게다가 작품 말미에 첨가된 약력란에 이 소설을 쓴 작가가 바로 이화여대 졸업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가슴이 설레기도 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목소리를 가진 여자이다. 어느 날 이 여자는 직장 동료에게서 실연을 당하자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동물원으로 발걸음을 향한다.

거기서 우리에게 갇힌 서아프리카에서 불들려 온 자자라는 이름을 가진 코끼리를 만나는데 이상하게도 평소에 사람들과는 대화를 잘 할 수 없었는데 자자와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 여자는 코끼리의 언어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었던 것은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서이기도 했겠지만 그녀가 코끼리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깨닫는다.

둘은 만나는 횟수를 거듭하면서 서로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는 자자가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병이 났다는 것을 알고 서아프리카로 날아가 자자의 가족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녹음해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그 녹음된 가족의 목소리를 들은 자자는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된다.

이 소설은 동물원에 갇힌 코끼리와 인간사회에선 적응하기 힘든 코끼리 언어를 하는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 존재와 존재 사이의 원초적 대화의 기저음이 무엇이며 적극적 대화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우화적으로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미주동포 작가의 것임을 상기할 때 이 소설은, 주류와 대화가 통하지 않고 향수병에 시달리는 이민자들의 초상을 그려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 주제의 중첩성이라는 미학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첫 문장에서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시종 일관 전문적 작가의 글솜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사건이 전개되면서 독자들이 반감을 갖게 될 질문, 즉 사람이 어떻게 코끼리의 언어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비하여 인프라사운드 파장이라는 과학적인 지식을 소개하면서 이성적 설득에 성공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녀가 말하는 것이 코끼리의 언어라고”라고 능청을 떨면서 불신감을 다 떨치지 못 한 독자들까지 소설적 진실 가까스로 바짝 끌어당기는 솜씨도 여간 아니다.

이렇듯 주제적 측면 뿐 아니라 구조면이나 문장면에서도 본국 작가들의 수준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수작을 쓴 작가가 바로 우리 동창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본명은 김신희. 현재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나는 실제로 이 후배 작가를 만난 적이 없고 이 작가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데 문득 들추어 본 문예지를 통해 이런 근사한 작품을 만나다니! 이는 필시 선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아침엔 지난 주 내내 내리던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났다. 햇빛 줄기로 시선이 머문다. 문득 나도 글을 쓰고 싶은 용기가 슬그머니 일기 시작한다.



이화 동창의 자신감



박순자 (국문, 67)

시카고 동창회 점심식사 모임이 2월 말에 있다는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 2월 초의 기온은 화씨 -10도 (-23C) 로 몹시 추웠었다. 동창회 모임이 있는 그날도 역시 도로 주변엔 눈이 게속처럼 쌓여있는 추운 날씨였지만 보고 싶은 동창들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렘 때문이었는지 내 몸과 마음에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동창회 모임에 늦지않게 조금 일찍 집을 나서는 순간 나의 기억은 멀고 먼 과거로 날아갔다. 52년 전 내가 열일곱살이었던 1963년 2월에 이화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던 행복 했던 날로 돌아가서 잊을 수 없는 그 소중한 기억이 순간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했다. 그리고 내가 이화를 졸업했던 1967년 2월 27일도 오늘처럼 따뜻한 느낌이지 않았던가!

오래 전 일이어서 배웠던 많은 것들을 지금 기억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이화에서 키워졌던 소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또한 친구들과 함께 순박하고 천진난만 시간들을 함께했던 내 일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4년이었던기도 하다. 이화는 가히 내 마음의 고향이라 할 만한 곳. 이화란 이름은 언제나 정답게 가슴에 다가오며 이화의 모임에 갈 생각에 마음이 무척 설렘었다.

웨이트레스의 안내를 받아 약속된 아늑한 모임장소에 들어가니 이미 40여명 동창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날 모임에는 선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심을 대접한다고 하시며 김선배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다. “오늘 나는 권오화 후배의 인생 철학인 ‘삶은 베푸는 것이다. 사람이 죽을 때 평생 살면서 저축해 두었던 돈을 묘지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본 받아서, 동창회 주소록을 만드느라 많이 수고하신 임원들과 지난 연말 파티에서 재미있고 흥겨운 시간을 마련해 준 동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임을 마련하였으니

오늘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시며 디저트는 권 동문이 베풀다고 말씀하셨다.

비록 밖에는 이곳 저곳 눈이 쌓여 있는 쌀쌀한 날씨였지만, 나는 우리 동창회 모임에 가면 나의 청춘시절을 찾아내고, 꿈에 부풀어 인생을 설계하던 젊은 시절을 나누며 회상할 수 있는 동문들이 있어서 즐거워진다.

김옥길 총장선생님의 말씀도 떠오른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화는 처음 시작할때 스크랜튼 부인이 학생 한명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오늘날 재학생 수천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여자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당신들이 속한 그 곳에서 최선을 다 하십시오”

1963년에 이화여대에 합격한 시골에서 온 수줍고 연약하기만 했던 내가 어떻게 오늘 이 나이에 ‘從心所欲不踰矩’ (종심소욕 불유구: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 라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오직 이화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여긴다. 나는 가는 곳마다 이화대학 동창회를 찾았고, 그 곳에서 동창회의 일원이 되었고, 동창모임에 의지하면서 위로도 받고 미국 이민 개척의 삶을 살아왔다.

이제 잠시 삶의 한가운데 멈춰 서서 2월이 나에게 가져준 삶의 행복과 이화 동문들의 감사함에 젖어본다. 나는 평생 이화여대의 동창임이 자랑스러웠 듯이 앞으로도 이화인으로서의 자신감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오, 이화인!

나성에서 페블 비치까지의 여행

정인자 (영문, 64)

나성의 Getty Villa에서 한 나절을 보내며 J. Paul Getty가 수집한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예술품에 흠뻑 빠질 수 있었던 이화인들은 일요일 조찬 예배로 총동창회를 마무리 짓고 두대의 관광 버스에 올랐다. 5번 FWY를 따라 북상, 152번 선상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크다는 과일가게를 구경하고 Gilroy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 했다. LA 동창회에서 처음 만나 룸메이트를 하게 된 안정옥 후배와 같이 가방을 끌고 호텔 방으로 들어서니, 우리는 이미 구면이 되어 있었다. 안 후배와 나는 밤 늦게까지 스스럼 없이 옛 이야기를 나누며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으니, 이래서 이화인이 좋은가 보다.

50여년 전 우리 두사람의 부친은 한국의 어느 남쪽 도시에서 각기 국회의원에 출마하였다가 쓰러린 낙선을 맛보았다. 큰 케이بل 제조회사를 소유했던 안정옥 후배의 부친은 다시 바닥에서 시작하여 아홉 자녀를 의사, 약사 등 전문인으로 키우는 데 주력하셨다고 한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아버님이 낙선의 고배를 마신 후유증으로 당시 국방부에 다니던 오라버니는 계획하던 미국 유학을 미루고 도시락을 싸들고 출근해야 했다. 오! 어린시절의 그 낙망과 아픔이여! 다시 우리 가슴을 적셔오는 그 아릿한 공통의 슬픔에 잠시 젖기도 했었다.

다음 날 조식 후, 레드우드 주립공원 답사에 나섰다. 숲 입구에는 2500년을 살았다는 한 레드우드 나무 등치에서 찢라낸 토막의 나이트에 '예수 탄생', '세익스피어 출생' 등 연도가 정확히 표시돼 있었다. 하늘을 향해 치솟은 큰 태고적부터 자라 온 나무들의 위상에 자연의 경이함을 느끼며 숲을 나왔다.



오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장이 있는 Pebble Beach와 Monterey Peninsula 선을 따라 Pacific Grove에 펼쳐진 17-Mile Drive를 관광했다. 멋지고 아름다운 해안선은 물론 희귀한 색깔의 돌들이 쌓인 해변가에는 옆으로 넓게 자라난 진초록의 독특한 모양새의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고, 곳곳에 특이하고 황홀한 경관이 보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우리들은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부젠비이와 온갖 현란한 아열대 꽃으로 둘러싸인 페블 비치 골프 샵에 들어서 쇼핑하기에 바빴다. 나는 내 새 며느리에게 줄 주홍색 골프 타올과 마그넷을 샀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랴' 여인들은 상점을 꼭 들러야 하고, 무엇이든지 사야지만 직성이 풀리나 보다. 지상 천국이라는 이 지역을 벗어나 우리는 John Steinbeck Center에 도착했다. 20세기의 미국 대문호였던 Steinbeck은 고향인 Salinas Valley를 배경으로 '에덴의 동쪽'등 많은 소설을 썼고, '불만의 겨울' 'Winter of Our Discontent'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이어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라 눈부신 서해안을 바라보며 피스모 비치로 이동했다. 석류 빛의 석양이 마지막 빛을 발하며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잔향을 기다렸다가 호텔방으로 들어섰을 때는 이미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고, 발코니 유리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소리가 우리의 컷전을 두들겼다. 안정옥 후배와 나는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다음날 모닝 콜에도 잠에서 깨지 못한 안 후배를 두고 나는 슬그머니 호텔 방을 빠져 나왔다. 샌디에고에서부터 동행한 영숙, 소영, 효정, 해주 여사는 일찌감치 기상하여 일부는 Pier까지 걸어갔다 왔다. 우리들은 한폭의 그림같은 바위섬과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사진에 담긴 네 여인의 표정에는 젊은 시절의 꽃다운 아름다운 시절을 회고하는 모습이 드리워져 있었다. “사진기가 좋아서인가요? 아니면 사진사의 기술 덕이에요? 혹은 우리가 워낙 미인이기 때문인가요? 우리 70대 맞아요? 내가 전송한 사진들을 받고 소영 여사가 답신을 보내왔다. 질푸른 청색의 아침 바다와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여행자의 기분이 그대로 사진 속에 반영된 덕이리라!

101 국도를 따라 내려오며 잠시 들렀던 작은 타운 Solvang은 1911년 덴마크에서 이민 온 교사들이 세웠다는데, 덴마크 국왕이 방문했을 때 덴마크보다 더 덴마크답고 아름답다고 칭송했다 한다. 거리에 줄지어 선 상점들과 건축물들은 북유럽의 한 타운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밝은 한낮의 태양 아래 반짝였다. 마치 어린 시절에 읽었던 안데센 동화의 나라로 들어선 기분이 아니었던가!

귀환 길 버스에서 효정과 소영 두 동문이 고운 듀엣을 불러 우리들의 갈채를 받았다. 앙코르 신청에는 소영 동문이 모두 하는 합창을 제의하여 그녀의 선창으로 추억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어느덧 수학 여행을 온 여학생들이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Regan Center이었다. Reagan 전 대통령은 구 소련 연방의 몰락을 유도한 미 대통령으로 20세기 거인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치밀하게 잘 계획된 여행을 마련한 북미주동창회에 감사드린다. 이화인들이 한자리에 만나서 반갑고, 서로 칭찬해 주며, 선후배간에 사랑을 나누며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가!

정해주 동문은 어느 설문지에 “동창회에 가는 것은 마치 옛 고향 집에 가는 것과 같다. 동창회에 참석해 옛 친구들도 만나고 뜻밖의 반가운 소식도 듣고 온다.” 라고 했다. 버스 옆 좌석에 앉았던 후배 홍옥선은 여중 때 내 친구의 6촌 동생이고, Getty Villa에서 같이 걸으며 만난 김홍자 선배는 나의 대학 동기 홍성자를 잘 알며 같은 타운에 살고 있다. 동창회에 가서 이름도 모르는 선후배들의 사랑을 받고 오곤 한다. 동창회 모임에 일찍 도착한 우리 샌디에고 동문들을 한인타운으로 안내하며 친절하게 쇼핑을 도와준 김정혜 LA 동문은 쇼핑 후 우리 일행을 팔빙수 집으로 데려가서 LA 일미의 청과 팔빙수를 사 주었다. “우릴 이렇게 대접해주니 여행기에 꼭 감사의 말을 올려야해요.” 조영숙 동문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영숙, 효정, 소영여사는 보라색 블루의 얇은 자켓과 밝은 오렌지 빛 블라우스 등 별난 옷들을 쇼핑 뺑에 가득차게 샀다. 그녀들은 이번 여행 때 이 옷들이 없었다면 아마 입을 옷이 없었을 정도로 매일 즐겨 입었다. 생각해 보니 동창회 첫 날 저녁에 나는 20년 전 오하이오 주에 있는 같은 동네에서 살다가 D.C.로 이사 갔던 현주 선배를 만났다. “아니, 아무게 아니시오?” 하고 그 선배가 묻기 전까지는 우리의 재상봉은 상상도 못 했던 일 이 아니었던가. 이 모든 아름다운 만남이 동창회의 연고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 이화인들아! 영원 하여라



The Steinbeck Center in Salinas



피스모 비치



Pebble Beach Golf Club



17 Miles Drive



The Getty Villa



피스모 비치



Berlin Wall



Casa de Fruta



Solvang

사모아 여행기

고중영 (영문 62)

2013년 겨울, 두번의 유방암 수술과 후속 방사선 치료차 거의 매일 병원을 들락 거렸다. 오랜 치료를 마치고 나는 어느 먼 곳, 특히 햇빛이 맑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을 느끼며 그저 폭 쉴 수 있는 곳으로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때마침 우편으로 온 광고를 보니 바로 LA에서 출항해 다시 LA로 귀향하는 29일간의 크루즈 여행이 눈에 띄었다. 비행장의 북새통, 오랜 비행 시간, 시차 조절의 불편도 없을 것 같았다.

우리 내외는 옳다 하고 남편 생일날 배에 올랐다. 이 여정은 하와이의 네 섬을 돌아 본 후, 늘 가보고 싶었던 남태평양 5곳의 이국적이고 신비스러운 섬들을 돌고 오는 것이었다. 설레임과 함께 처음 본 섬들은 문자 그대로 별천지였고 Moorea, Tahiti, Bora Bora의 아름다운 풍광이 뇌리에 선하게 박혀 있지만 나의 관심은 Samoa 섬을 돌아보고 싶은 것이었다.

대학 시절에 읽었던 Margaret Mead의 책 'Coming of Age in Samoa'가 기억이났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28년에 출간되었는데 미국 인류학의 대모 Margaret Mead가 24세의 나이로 논문 연구를 위해 6개월 간 Samoan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field work의 경험을 쓴 책이다. 그당시 Mead는 왜 미국(즉 부유한 나라)에 사는 teenager들은 작은 일에도 불만이 많은 거 같은데, 사모아 같은 지역에 살고있는 이들은 불만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가를 연구하고 있었다.

Mead가 사모아 섬을 체험한 지 거의 90여년이 지난 지금 난 이 섬을 방문하면서 Mead가 표현했던 진흙 바닥의 오솔길은 사라지고, 포장된 길 위에서 나는 SUV를 타고 섬을 돌아보며 현대판 사모아로 바뀐 모습을 보았다. Samoa 섬은 1722년에 화란인이 처음 발견한 후, 1962년에 독립하여 정식 국명을 Western Samoa에서 Samoa로 바꾸었다. 1830년 첫번째 영국인 선교사로 왔던 John Williams는 9년간 선교 사업을 하던 중 Samoa 원주민들에게 잡혀 먹혔다. 그러나 현재 Samoa에는 95 퍼센트가 기독교인임을 자인하고 있다.



Samoa섬의 작은 마을들은 Mead가 서술했던 100년 전이나 별로 달라보이지 않았다. 섬 관광을 안내한 여행 가이드에 의하면 대부분의 Samoan들은 아직도 3세대 또는 4세대의 식구가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집안에 벽이 없는 한 공간에서 살고있다고 했다. 아직도 이 섬 주민들은 옛날의 가족 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자그마한 동네마다 천정만 앞으로 덮은 원형의 마루가 있고 그곳이 공동생활의 공간인 듯 보였다. 여인네들이 모여 앞으로 바구니 또는 유리창 shade를 만들며 재미나게 이야기를 조잘거리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내 생각에 이 섬사람들에게는 social service가 별로 필요없고, 독거 노인의 외로운 삶이 적을 듯 보였다. 조그마한 동네라도 20-30채 정도의 집이 있으면, 적어도 두세개의 교회가 눈에 보였다. 인구에 비해 꽤 많은 교회가 보이며 종파도 많은 것 같았다. 섬 전체에 천주교, 기독교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등) 여러 종파의 교회가 있으며, Mormon 교회도 여러 곳이 보였다.

Samoan들은 19세기 중반부터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도덕성, 기독교적 행실과, 성관계의 윤리를 배워왔지만 그들의 본래 습관이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젊은이들은 바나나 나무밑으로만 들어가면 그들의 성적 습관을 즐겼고, 밤에 남자가 어느 집에 슬쩍 들어가 성추행을 하고 도망가도 그것을 문제 삼아 징계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Margaret Mead는 서술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울 때 기숙사를 짓고 어린 여학생들을 기숙사에서 머물게 함으로 소수의 여학생들이 보호를 받았다고 써 있다.

현재 사모아에는 정부에서 8년간의 공립교육을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소속된 학교 교복을 입은 채 하교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여행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섬에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운이 좋은 젊은이들은 정부의 서사로 일거리를 찾을 수 있지만, 나머지 청년들은 고기잡이를 하거나 아니면 나무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자거나 한가하게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조금 안타까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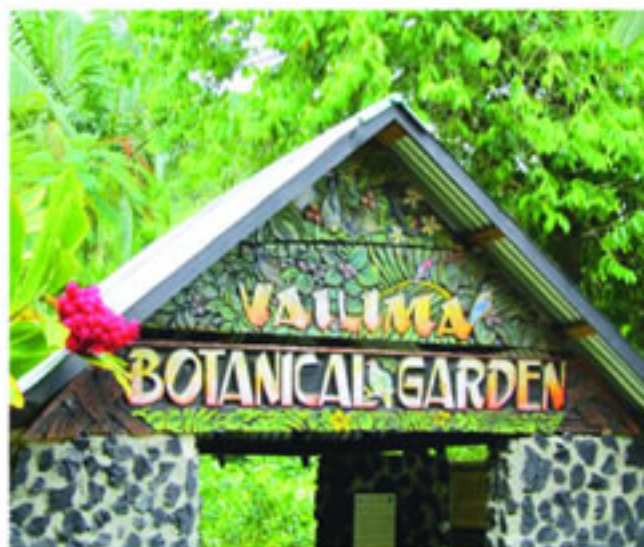
어느 덧 우리 일행은 꼬불 꼬불한 산길을 따라 Samoa 섬의 산 중턱에 올랐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또 하나 소중했던 Samoa 섬의 기억은 내가 영문학도로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어려서 즐겨 읽었던 ‘보물섬’의 저자 Robert Louis Stevenson (1850-1894)이 그의 마지막 5년을 Samoa 섬에서 살면서 아홉편의 소설을 쓰고 과로사로 44세란 나이에 이곳에서 일생을 마감했다는 것이다. Stevenson은 매우 약한 체질의 어린아기로 매섭게 추운 영국의 북방 Scotland에서 태어났다. 글솜씨가 뛰어난 그는 ‘보물섬’출간으로 많은 돈을 벌어 워낙 좋아하는 모험 여행을 다녔다. 후에 San Francisco 태생 부인 Fanny와 함께 Hawaii로 이주하였다. 그는 재미난 이야기꾼이었고, 그의 거실에는 매일 밤 많은 손님이 항상 들끓었다. 그러던 중 Hawaii의 여왕이 그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자, 그의 부인이 남태평양은 천식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제일 좋은 곳이라 하며 Samoa섬으로 다시 이주 하였다.

Stevenson은 1889년에 Samoa 섬 산 중턱에 있는 400 에이커의 땅을 4천불에 사서 그곳을 Vailima (or Five Waters)라 명명 하였다. 그곳에 장엄한 저택을 짓고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 여러 종류의 새들과 야생 동물들이 사는 것을 감상하며 아홉편의 책을 4년 만에 쓸 수 있었다. 그는 태평양이 보이는 서재에서 얼굴에 바닷바람이 스쳐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곳의 삶을 즐겼다. 한 때 그의 집이 Samoa에서 제일

좋은 집이어서 Samoa가 처음 독립했을 때 지사의 관저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Robert Louis Stevenson Museum으로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그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Tusistala’(Teller of Tales, 즉 이야기꾼) 이라고 불리면서 섬 주민들과 정치가들 사이에서 인기 좋은 주민으로 사랑을 받았다.

Stevenson은 항상 자기가 임종 전에 오랜 병고를 치를까... 염려 했었는데 1894년 12월 3일 하루 종일 글을 쓴 후 뇌일혈로 바로 사망하였다. 당시 London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며 “나는 멋진 (splendid) 삶을 살았다. 불평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으며, 다시 살아도 이처럼 변함없이 살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의 무덤은 저택에서 1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의 장화를 곁에 묻어달라고 했다고 한다. 또한 묘비도 자신이 써놓고 갔다고 한다.

검푸른 숲, 맑은 폭포, 그리고 하얀 백사장을 떠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29일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안식처 이구나 생각하면서도 나는 그 진귀한 이국 풍경을 다시 그려보면서 남편에게 넋짓이 농담을 했다. “여보, 당신도 천식이 있는데 우리도 남태양으로 이사 하는게 어떨까요” 했다. 남편은 빙긋이 웃었다. 칠순 중반이 넘었지만 아직도 호기심 많은 나날을 게으름 피지 말고 살아야지 하는게 내 생활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다짐해 본다.



광복 70주년에 돌아보는 1945년 해방의 경험



유진순 (심리, 57)

해방이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본다. 이차대전 말경, 국민 학교 5학년 어린 시절 매일 날아오는 미군 비행기의 공습을 두려워하며 수업 중에도 방공호로 피신연습이 반복되던 분위기에서 공부를 했다. 종전 후 어린 우리들에게는 매일 라디오에서 부르짖는 해방 만세 소리, 달리는 전차 지붕위에 서서 만세를 외치다가 누군가 떨어져서 다치기도 했다는 소식, 또는 좋은 세상을 만난 듯 광적으로 날뛰는 시민들의 소식을 라디오에서 들을 때면 무엇이 무엇인지 마치 속임수에 빠진 듯 어리둥절 했었다. 아마도 어린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도 일본의 압박으로 공포에 시달리던 우리 민족의 속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해방과 더불어 특이하게 달라진 것은 교실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한글 공부하면 나에게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다. 해방 전 어느 해의 여름 방학 동안에 오빠가 나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덕분에 나는 주일학교에서 커다란 백지에 붓글씨로 쓰인 한글 찬송가를 읽으며 자신있게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글을 배운 것은 집에서 일본어만 쓰라는 학교 선생님의 지시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히 학교 선생님에게 감추어야 했던 나만의 비밀이었고, 그러기에 부담이 되었던 기억이 떠오를 때면 나는 아직도 우리 말을 쓰는 자유조차 억제 당하였던 억울한 심정의 전율을 온 몸에 느끼며 울먹거리게 된다.

드디어 교실에서 일본어 대신에 ㄱ, ㄴ, ㄷ, ㄹ 과 ㅏ, ㅑ, ㅓ, ㅕ, ㅗ, ㅛ 를 배우며 이것들을 조합하여 한글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도 일본어만 쓰라고 강요하던 학교에서 이제는 사용금지되었던 우리 말을 쓰고 읽을 수 있는 한글을 배우고, 차츰 해방이 무엇인지 책에서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의 고유한 5천년 오랜 역사도 배우고 무엇보다도 우리민족 문화발달에 큰 영향력을 주었던 불교와 유교문명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던 사실도 배우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첫 자부심도 느껴보았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한 해방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기원하던 우리 민족의 참다운 해방과는 거리가 멀었다. 승전한 연합국들에겐 우리의 단일 민족성은 안중에도 없었고 땅 조각으로만 보였던지 그들은 우리 민족을 지도상의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다. 북한은 공산국가인 소련이 그리고 남한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신탁통치(trusteeship)를 하기 시작했다.

한반도를 38선의 남북으로 갈라놓은 것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민족 자율적 발전의 가능성을 마비시키는 잔인한 침해였다. 36년간의 자율성을 박탈 당했던 민족으로서 재활능력을 구성하려면 능력있는 인재들의 합심 노력이 귀중한 요소이고, 그 당시 독립을 추구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인재들이었으나 북한은 공산주의로 그리고 남한은 민주주의 정부체제로 갈라지면서 합심노력의 기회는 없어지고 사상의 분열로 인한 갈등은 불행히도 동족간의 암살로 진전되었다. 우리 민족의 건전한 재활능력이 소멸되면서 독립재건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3세의 청년시절부터 중국에서 평생을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였고 해방 후에는 서울 서대문에 있는 저택에 머무르며 새 정부건립에 기여할 인재로 시민들의 큰 신뢰를 받으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을 저택으로 찾아온 경찰관이 총을 발사했다는 1949년의 암살보도는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던 어린 나에게도 충격과 불안을 경험하게 하였다.

해방 이후 69년이란 긴 세월이 지난 2014년에 실린 Los Angeles Times의 아시아의 인도적 문제에 관한 보도로 Award를 받은 Barbara Demick 기자의 저서 'Nothing to envy (2009)'에서 그동안 혼자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38선 분열에 관한 나의 견해에 객관성을 인정해주는 글을 읽으며 꿈인 듯 싶었다. 그의 글은 이러하다:

"Koreans were infuriated to be partitioned in the same way as the Germans. After all, they had not been aggressors in World War II, but victims."

(번역: 한국은 엄연히 침략국이 아니었고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에 부과한 처벌과 같은 방법으로 국토를 남북으로 분열당함에 격분하였다.) 역사적 실수는 공개적으로 인정되었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보다 현명한 앞날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다.

이미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국가원수로서의 정의로운 진정한 지도자의 중요성을 논하였건만, 언제나 북한과 남한의 정부는 독일처럼 통일의 능력을 발휘하여 정의롭고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을지? 마찬가지로 교육기관 또한 교육의 이념을 귀하게 여기는 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진실된 교육기관으로 변명하기를 기대하고 싶다. 정의롭고 인도적인 개념을 준수하는 강력한 자립능력만이 우리 민족과 교육기관의 변명을 지켜주리라고 확신한다.



Chicago 시카고

구은서 동문은 1973년도에 간호대를 졸업하고 이어서 Illinois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Nurse practitioner와 의료 경영인으로서 한인사회 여러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다.

Advocate Lutheran General Hospital에서 한국부 책임자로 있으며, 특히 재미 교포들을 위해 문화적 차이와 이중 언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병원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여 교포 환자들의 수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또한 시카고 한울 노인복지회 이사장, 한인 간호원 협회 회장, 이화대학 동창회 회장,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 부회장으로서 한인사회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더 나아가 Illinois 주 정부의 Board of Nursing의 이사로 지명되어 2년동안 활약을 했다.

현재 Chicago 한인회 부이사장 일을 맡고 있으며, 16대 시카고 한인 여성회 회장, 현 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있다. 구은서동문은 그의 Leadership을 인정받아 2014년 11월23일에 'Asian Chronicle USA'에서 사회 봉사상과 함께 미국 Obama 대통령이 주는 'Presidential Volunteer Service Award'를 수상하였다.



조각가 최미강 Human & Body 개인전

최미강(조소, 65) 동문이 한인문화회관 KCCOC Art Gallery에서 'Human & Body' 주제로 전시회를 가졌다. 대리석을 작품 재료로 한 'Infinity Love'와 'Empty Day'를 비롯한 조각 7점과 그림 11점을 출품했다.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theme을 찾아내고 영감을 받아 인간의 몸이 표현하는 이야기를 간결한 선으로 단순화시켜 theme을 돋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한 그녀의 표현이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며 따뜻하고 많은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는지...

시카고 중견 예술가 네트워크 공모전 등에 입상했던 동문은 지난1992년부터 2003년까지 Korean Artist Exhibition을 비롯해 1998년 Evanston Galerizde Dramaticus Gallery 조각전, 2002년 조각과 Fine Art 개인전, 시카고 시니어 예술가 전시회, 시카고 시니어 아티스트 조각전, 2013년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 미술전시회 등에 참여해 왔다.

최미강 동문의 작품은 조각뿐 아니라 그림도 너무 아름다워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준다. 클래스에서 가르치고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작품활동하는 모습은 동창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있다. 이수재 교수님을 비롯해 많은 동창들이 훌륭한 전시회에 참석해 축하하며 자랑스러워 했다.



김경희 동문 (피아노, 73)이 'Amazing Grace' 라는 제목으로 찬송가 피아노 연주곡 CD를 출판하고 감사와 나눔의 예배로 기념회를 가졌다. 가족과 친지 교우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동창들이 함께 CD도 구입하며 축하해 준 우아하고 따뜻하고 뜻깊은 자리였다.

집안에 늘 어머니의 피아노연주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아들의 간증과 교회반주를 비롯해 각종 커뮤니티 봉사 등 바쁜 와중에서도 지금까지 수십년간 손수 김치를 담가왔다는 동문, 음식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언제 틈을 내어 그 힘든 CD를 낼 수 있었는지 열정과 끈기에 감탄한다.



이번 CD 출판 기념 예배는 김경희 동문의 2번째이며, CD 판매 전액을 선교활동과 구제 사업에 사용한다고 한다. 그 중의 하나는 Haiti의 큰 지진 후 세워진 Grace Orphanage로 The Midwest Presbyterian Church를 통해서 기금이 전달 될 것이다.

십시일반의 힘으로 그 곳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지난 수년간 김경희 동문은 선교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경희 동문 연락처:

alicekimpiano@yahoo.com

Michigan 미시건

박혜숙 동문은 1969년 이화여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1970년에 미 평화봉사단 한국어 교사로 도미해 1973년에 Peabody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석사 학위를 받은 후 3년간 교사로 일하였다. 같은 해 Vanderbilt 의과대학 학생인 Todd Wilkinson씨와 결혼을 한 후 1975년 미시건으로 이사를 했다. 미시건에서 40년간 자녀 양육을 하면서 박사 과정을 시작하여 1981년에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임상 심리학자로 심리 치료소, 병원, 개인 사무실 등에서 35년간 근무를 하다가 4년 전에 심리학자로 은퇴를 한 후 현재 Northern Michigan University에서 Board of Trustees의 Vice Chairperson으로 일을 하고있다. 박혜숙씨는 미시건 주의 아태 자문 위원회를 8년간 이끌어간 위원장으로 미시건 아시안 사회의 지도자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Midwest Asian Americans are an invisible minority. Are the life experience of Midwestern Asian Americans different from those in the East or the West Coast? In this book, the editors present more than 40 essays to give an intimate glimpse into Michigan's Asian Americans, creating a fuller picture of their resilience, creativity, perseverance, aspirations, and hope for the future. The murder of Vincent Chin in 1982 in Michigan has had profound impact on the pan-Asian American movements throughout the US. Readers interested in history, sociology, and Asian American studies will enjoy this book - Asian Americans in Michigan: Voices from the Midwest.

저서로는 한국 입양을 다룬 Birth is More than Once: The Inner World of Adopted Korean Children과 After the Morning Calm: Reflections of Korean Adoptees 가 출판되었다.



Washington D.C.

워싱턴 D.C.



김홍자 동문 (섬예 58입, 07졸)

김홍자 교수는 Fulbright Research Grant를 받아 올 6월부터 10개월간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금속공예 발달에 관한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 금속 전통 기법'에 관한 연구를 영문도서로 출판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여러 박물관과 인간 문화재를 비롯하여 여러 금속공예 작가들을 방문하고, 한국에서

오래 전부터 쓰여 온 금속 전통 기법인 금부 포목상감, 한국 장롱의 낫쇠 장식, 왕관에 쓰였던 누금기법과 칠보 옷칠법 등 유물을 통해 조사하고 현대 작가들과 한국 금속 상품에 쓰이는 기법을 정리하여 사진과 함께 책으로 엮을 계획이다.

김 동문은 1961년 (4학년 2학기)에 도미하여 인디애나 주립 대학에서 섬유 및 금속예술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국제교류 Fulbright 교환교수로 1982-83년에는 홍익대학에서 그리고 1994-95년에는 원광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미 전역과 대만, 일본, 중국, 프랑스, 소련,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120회 이상의 전시회 및 Workshop의 경력도 쌓았다.



국무부 풀브라이트 연구 그랜트

김홍자 교수 3번째 받아

김홍자 교수(몽고메리 칼리지 명예교수, 사진)가 미 국무부가 시행하는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 연구 그랜트를 3번째 받게 됐다.

김 교수는 오는 28일 워싱턴을 떠나 한국에서 10개월간 머물며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한국 금속공예기법을 연구하고 책을 집필할 계획이다.

김 교수가 연구활동을 마친

후 영문으로 집필할 책은 한국 전통 금속 표면기법, 기법들의 역사적 배경, 금속공예계의 발전, 공예의 현대적인 활용 등을 두루 다루게 된다.

몽고메리 칼리지에서 42년간 재직하다 지난해 은퇴한 김 교수는 이화여대, 안디애나 주립대 등에서 학사와 석사과정 을 마쳤으며 풀브라이트 시니어 스칼라로 홍익대와 원광대에서



강의했으며 최근 몽고메리 카운티 아트 앤 유네스코 카운슬 심사위원에 위촉됐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미 국무부가 지난 1946년부터 미국을 포함 세계 각국의 인재를 선발, 수여하는 명성 높은 장학금으로 국제교류 증진의 목적도 되고 있다.

(장영희 기자)

김 교수는 1980년대 “금속예술과 학생들끼리 뭉쳐 예술혼을 불태우자”는 취지로 만든 모임이 지금의 [금속 제3그룹]의 시초라고 설명하며 올해로 31년째를 맞는다. 매년 한 번씩 각기 다른 학교 출신 작가들을 초청해 전시회를 열어 왔다고 했다.

김 동문은 매년 북미주동창회 Art Exhibition의 curator로 수고했다. 지난해 은퇴한 그는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친 후에는 자서전을 집필할 계획이란다.

워싱턴 지역 동창 활동 소식



지난 4월2일부터 30일까지 Washington D.C.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KOWINNER (코위너) 미술 전시회가 있었다. 이 전시회는 세계 한민족 여성 미술 특별전시회로 '선택한 고향: 여성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국내외 여성 작가 23명을 초대해 성대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코위너 미술 특별 전시회에는 김홍자(섬예 58입, 07졸) 동창이 아트 디렉터로 수고하였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김홍자 교수와 녹미희 회장 김정화(조소, 82), 김정선(조소, 85) 동창들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워싱턴 녹미회

워싱턴 D.C. 지역 이화여대 동문 여성작가 15인의 작품전이 '꽃피는 워싱턴의 배나무(Blossoming Washington Pear V)'라는 주제로 5월27일부터 6월12일까지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원장 최병구)에서 개막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녹미회 회장 김정화(조소, 82)동창과 몽고메리 칼리지에서 42년 간 금속예술과 교수생활을 했던 김홍자(섬예 58입, 07졸) 교수등 15명의 이대 워싱턴 D.C. 지역 동문 작가들이 참여했다. 전시회에는 회화, 도예, 조각, 금속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50점이 소개되었다.





Blossoming

Washington Pear V.



Diane Youngmi Lee, Eun Kyung Han, EunSook Lee, Jane Shin Thomas
Jeong Seon Kim Choi, Jeongsok Oh, June Yun, Junghwa Kim Paik
Kumella Hongja OKIM, Kyungal Hong, Minsun Oh Mun
Myungsook Ryu Kim, Ok Ji Chung Kim, Sukjin Choi, Yoomi kim Yoon

May 27 - June 12

Opening Reception: Wednesday, May 27, 2015 @ 6:30 - 8 PM
Korean Cultural Center Washington, D.C. 237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KoreaCultureDC @KoreaCultureDC KoreaCultureDC www.koreaculturedc.org

Florida

플로리다

이승희 동문 (의대, 67)

Seung (Sue) Kim graduated from medical school in 1967 and came to the United States in 1968. Her psychiatric residency was completed at the Hahnemann Medical School and Philadelphia State Hospital. She then became board certified in psychiatry and a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at the Thomas Jefferson Medical School in Philadelphia. She worked for the Veterans Administration Medical Center in Central Pennsylvania for 25 years.

In 2006, she moved to Ormond Beach, Florida and was periodically employed in psychiatry on a part time basis. Pursuing a lifetime interest in history and culture, she has become a Museum Guild member and is active in the Historical Society.

In 2014, Florida Governor Rick Scott appointed her to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Florida Humanities Council (FHC). She was the first Asian-American to be recognized. The council is composed of 27 members with six appointed directly by the Governor.

FHC is affiliated with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which funds and coordinates statewide public humanities programs and publications that explore the people, places and ideas that shape each state. In addition to the Speakers Bureau program, FHC awards grants for humanities projects, provides seminars for Florida teachers, organizes cultural tourism events around the state, and publishes FORUM, an award-winning magazine.



이름	국문 (Maiden Name)	
	영문 (Legal Name)	
졸업사항	전공	
	졸업년도	
전화번호	Home Phone	
	Cell Phone	
이메일 주소	E-mail Address	
주 소	Mailing Address	

이사회비	발전기금	장학기금
\$ 100	\$	\$
2015년 북미주동창회 행사후원금	마곡 제2부속병원 건립 후원금	합계
\$	\$	\$

1. 이사회비는 매년 \$100.00 입니다.
2. 발전기금, 장학기금, 행사후원 & 이화 의과대학 서울 마곡병원 건립후원은 뜻하시는대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3. Please make a check payable to EWUAANA and mail to Heri Yoo (회계:유혜리)
4. Mailing Address: Heri Yoo
19120 Harnett St.
Northridge, CA 91326

*** 감 사 합 니 다 ***

2015 임원 이사회 Agenda

날짜: 2015년 10월 8일

시간: 오후 12시

- 개회선언
- 이사소개
- 전 회의록 낭독
- 각 분과위원 활동 보고
- 2014년도 결산 및 감사 보고
- 2016년도 예산안 심의
- 마곡 제2 의료원 건립 모금 현황 보고
- 공천위원회 보고
- 임원 소개
- 신임회장 / 수석부회장 소개
- 2016년도 총회 및 사업계획 발표
- 기타 안건과 공지사항
- 폐회

총회 Agenda

날짜: 2015년 10월 8일

시간: 오후 2시

- 개회선언
- 교가 제창
- 회장 환영사
- 이사장 인사
- 전 회의록 낭독
- 사업보고
- 결산 감사 및 예산보고
- 2016년도 총회 계획 발표
- 신임회장 / 수석 부회장 인준
- 신임회장 인사
- 기타 안건 및 공지사항
- 폐회

Canada와 New England 가을 단풍 cruise



Boston

Boston

Boston is a wonderful blend of stylish sophistication and historic New England charm. Founded in 1630, the city boasts over five centuries of history and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American Revolution with influential early Americans such as Paul Revere and Samuel Adams, and the site of the infamous Boston Tea Party. The city is also home to world-renowned universities, which add a youthful energy to this timeless place. Boston Harbor offers a multitude of activities, from an up-close view of the exciting operations of a working industrial port to people-watching along the new HarborWalk. From the skyscrapers of Downtown to the natural beauty of the Harbor Islands, Boston HarborWalk offers many spectacular views.

Portland, Maine

Situated along Maine's rocky coastline, Portland provides the perfect getaway with the cultural activities of a major metropolitan region while maintaining a small town charm. Enjoy the region's wildlife parks, visit art museums and galleries, or an optional day trip to the charming village of Kennebunkport, summer home of the Bush family.



Portland, Maine

Bar Harbor, Maine

Located at the edge of the sea, there is a special mystique to Bar Harbor, Maine. One of its many attractions is its close proximity to Acadia National Park—over 50 square miles of mountains, lakes, hiking, biking, views and dramatic coastline. Bar Harbor's museums are small and focused. You can learn about Bar Harbor's "Gilded Age," the island's Native American heritage, the Gulf of Maine's unique ecosystems and species, and the natural wonder of Acadia National Park. Visit the park on an optional tour.



Bar Harbor, Maine

Saint John, New Brunswick, Canada

Walk through the charming streets of Uptown Saint John, and step into a vibrant past—with an intriguing modern edge. Here, hundreds of years of history are alive. From the charm of the beautiful waterfront Uptown to the tides of the Bay of Fundy, activities in Saint John are wrapped in either a compelling history, or a heart-pumping adventure. Get up close to the immense tidal phenomenon at the Bay of Fundy on an optional tour.



Saint John, New Brunswick, Canada

Halifax, Nova Scotia, Canada

Visit Halifax and experience a friendly and upbeat culture, a walkable city and pleasant rural communities. There is a variety of activities to suit every preference, from outdoor adventure to wine & culinary tours. Some popular autumn activities include visiting the beautiful Nova Scotia Art Gallery and dining in town for the freshest Nova Scotia seafood. For an optional excursion, take a drive to the beautiful fishing village of Peggy's Cove, with rugged landscape and quaint scenery.



Halifax, Nova Scotia, Canada

2014년에 이어

2015 Best Realtor 선정

하와이 탐 부동산 유지니 대표가 12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Honolulu Magazine 에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Best Realtor 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월 Old Republic Asian Pacific Business Development 에서 수여하는 2014년 Top Producer 상을 수상한 바있는 유지니 대표는 2014년 오아후 섬에 있는 6000명 이상의 에이전트중에서 68위를 했으며 성실, 정직, 신용을 모토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관한 요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문의는
하와이 탐 부동산 대표
유지니 (808)386-227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eannie Yu(R)

President/PB

Cell: (808) 386-2277

TOP 100 Realtor in 2014 in Oahu
Best Realtor in 2014 & 2015
by the Honolulu Magazine

Top Producer Award in 2014
by the APBD in Old Republic
Title & Escrow in Hawaii



HAWAII TOP REALTY

INTEGRITY TRUST HONESTY

1451 S. King Street #202 Honolulu, HI 96814
Office: (808) 955-4985, Fax: (808) 955-4984



Email : jyu@hawaiioprealty.com

Website: www.hawaiioprealty.com

wang
KOREA

과



은 한가족입니다.



“당신의 한국을 맛보세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신선한 제품을 가장 빠르게 공급하고자 항상 노력하는 왕글로벌넷은 “왕”의 이름으로 다양한 우리 식품개발에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이제는 한국인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을 찾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손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원료 선정에서부터 제조, 가공, 포장, 공급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지속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wang
KOREA

WANG GLOBALNET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2772 Jordan Ridge Ct. San Diego, CA 92130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CANOGA PARK CA
PERMIT # 488

2018년, 이화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세상을 바꿉니다

– 환자중심의 신개념 첨단 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제2부속병원 개원!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대우로 환자를 치료하고, 그 가족까지 건강하게”
대한민국 여성의학을 선도해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세계 고객에게 새로운
치유 경험을 선사할 진정한 환자중심의 첨단 국제병원을 개원합니다.



2015년 1월 건축 개시 기념 예배를 시작으로 세계 시민의 사랑을 받을
명품 국제병원 건립의 닻이 올랐습니다.

2018년 세계 고객에게 사랑받는 첨단 국제병원으로 탄생할
마곡지구 제 2 부속병원은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이화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고난이도 중증질환 및 미래형 질병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메디컬 서비스 중심의 글로벌 병원으로 성장합니다.

이화 힐링 스퀘어(Ewha Healing Square)를 모티브로 도전과
개척, 섬김과 나눔이라는 이화의 설립 정신이자 핵심 가치를 담은 환자 중심
병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해외 이화 동창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이화 동창 및 동창 가족을 위한 진료비, 건강검진 할인 혜택
- 의료원 방문 시 전담 직원 안내 및 의전 서비스
- 해외 동창을 위한 특별 검진 프로그램 운영
- 숙박 검진 및 의료원 투어 프로그램 제공
- 제휴 호텔 이용 시 객실료 할인
- 이상 소견 시 당일 진료 의뢰 및 빠른 결과 회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EWHHA WOMANS UNIVERSITY MEDICAL CENTER

상담 및 예약_ 이대목동병원_ 82-2-2650-5114 이대여성암병원_ 82-2-2650-5990 이대여성건강센터/건강증진센터_ 82-2-2650-5117